

농산물·석유값 폭등... 소비자물가 2.6% ↑ 9년만에 최대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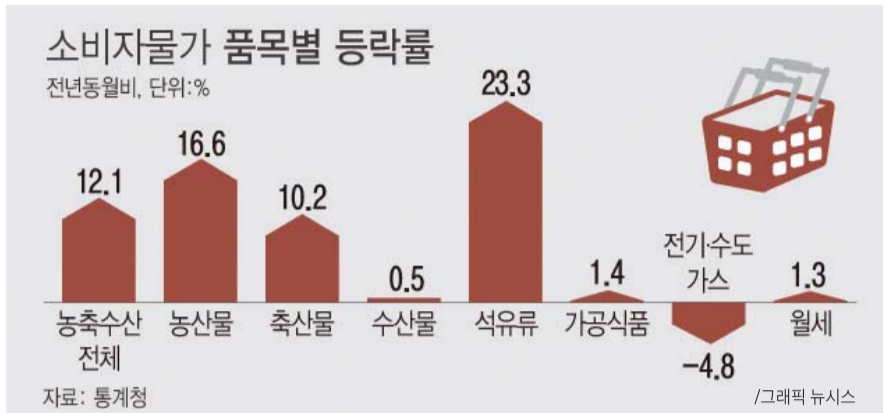
과 130%, 마늘 53%, 달걀 45% 등 농축수산물 가격 전년비 12% 상승 “하반기로 갈수록 오름세 해소될 것”

과, 달걀에 휘발유마저 가격이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는 9년여 만에 가장 높고, 지난 4월(2.3%)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기록이다.

올해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년=100)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다.

‘장바구니 물가’로 여겨지는 농축산



물 가격이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큰 폭으로 뛰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 폭도 컸다.

우선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농산물이 16.6%, 축산물 10.2%, 수산물은 0.5% 각각 올랐다.

품목별로는 과 가격이 전년 대비 130.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AI로

공급이 줄어든 달걀(45.4%)과 함께 마늘(53.0%), 고춧가루(35.3%), 국산쇠고기(9.4%), 돼지고기(6.8%) 등도 덩달아 뛰었다.

공업제품 물가는 3.1% 올랐다. 2012년 5월(3.5%)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 중 석유류가 무려 23.3% 올랐다. 휘발유(23.0%), 경유(25.7%), 자동차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용LPG(24.5%) 등이 오른 영향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현재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폭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높아졌다. 특히 개인서비스가 2.5% 오른 가운데 외식 물가는 2.1% 상승했다. 운영비, 재료비 인상으로 구내 식당 식자비가 오른 것이 영향을 줬다.

서민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3.3%로 2017년 8월(3.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르며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는 각각 1.8%, 0.8% 올랐다.

어운선 심의관은 “올해는 기저효과로 다음 달까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축산물 가격이 출하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공직관련 투기 범행 ‘전원구속·무관용’ 강력대응”

» 1면 ‘34명 구속, 908억’서 계속

김창룡 경찰청장은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광명, 시흥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직원이 친인척과 지인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수사중인 주요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등 총

287명이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최근 5년간 송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을 보전 조치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판매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주택 투기사범 7명을 구속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경찰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공직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탈세특별조사단은 1차 3기 신도시 지역 등 6개 지역에 대해 탈세 혐의가 있는 165명을 세무조사하고, 현재 2차 전국개발지역 44곳을 대상으로 289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결된 세무조사건수는 총 94건으로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을 추정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 허위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구속 고위공직자 9명 4~5급 농업법인 20여곳 외감 의뢰”

‘LH사태’ 조사 중간결과 일문일답

“투기 LH직원, 3기신도시 대부분 일부 전주 등 지방도 포함돼 있어”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일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을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 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2만 3000여개로, 이들도 분석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대출해준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보면 LH 직원 77명을 적발했다고 했다. 이들 모두 3기신도시 투기로만 적발된 건가.

“(김창룡 경찰청장) LH직원은 3기신도시 광명·시흥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주 등 지방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로 직원, 직원 친인척, 지인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특정지역을 통해 투기하는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투기했다.”

-경찰청 수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했다고 했다. 현직은 몇명인가.

“(김창룡 경찰청장)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구분하지 않고 3급 이상의 경우 고위공직자로 구분했다. 구속된 고위공직자 9명중 현재 3급 이상 되는 경우는 없고, 주로 4~5급,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수사 의뢰된 LH 직원들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람들인가. 초기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사람이 포함돼 있는 건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소위 참여연대에서 초기에 고발했던 LH 관련 투기사범은 주로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 위주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투기사범은 저희가 데이터 수사를 통해 토지거래내역이라든지 금융,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특정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친인척과 기획부동산업주 또 지인들이 함께 투자한 유형이다. 완전 별개의 투기조직으로 보면 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검토중인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은 몇 곳 정도인가. 일부 법인의 경우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2만 3000여개 정도다. 영농조합 형태가 1만개, 법인형태가 1만3000여개다. 현재 농식품부와 1차검토를 통해 20여곳에 대해 외부감사 결과 분석을 의뢰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대로 수사 의뢰조치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나 단위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헛터그룹

(주)헛터라이프 T. 070-7204-4515